光州日報

광주 20/27℃ 목포 21/26℃ 여수 22/26℃

저신용, 저소득자를 위한
"햇살론" 업무개시
동양저축은행 226-0180

단기 4343년 (음력 8월 8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 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8779호 1판 2010년 9월 15일 수요일

코스모스 가을 동심 추석을 일주일 앞둔 14일 광주 남구 양과동 민속체험관 일원 8만㎡의 부지에 문을 연 '생태체험학습장'에서 유치원생들이 코스모스 터널을 지나며 가을을 만끽하고 있다. 남구 생태체험학습장은 동과·작두콩·갓끈이콩·조롱박·수세미 등 각종 식물터널과 한방초 단지 등이 조성돼 있으며, 다음달 11일까지 개방된다. /나명주기자 mjna@

'전기료 폭탄' 지역경제 비상등

산업·교육용 5.9% 인상 이어 내년에도 큰 폭 올려

목포에서 조선업 협력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달 7700만원이었던 전기요금이 이달들어 2000만원이나 더 나왔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전기요금이 계속 오른다는 소식에 A씨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가 8월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5.9% 인상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내년과 내후년 각각 '연료비 연동제'와 '전압별 요금제'를 도입할 방침이어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많이 사용하는 광주·전남 지역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14일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발송한 전기요금고지서를 통해 '8월1일자로 전기요금을 평균 3.9% 인상했다'고 알렸다. 산업용과 교육용, 가로등용은 5.9%, 주택용 2%, 심야전력은 8% 인상됐다.

특히 에어컨 등 전력사용량이 많은 8월 요금이 크게 오르면서 각 가정과 학교, 산업계에 '전기요금 폭탄'이 부과됐다.

문제는 이번 인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요금 인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먼저 내년부터 국제 연료가격 변동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된다. 유가가 오를 때마다 전기요금도 덩달아 오르게 되는 것이다. 고지서 요금 항목에 연료비 연동요금이 별도로 부과된다.

이와 함께 2012년부터는 현행 용도별 요금제가 전압별 요금제로 바뀐다. 지금은 학교와 공장, 농업에는 전기를 싸게 공급하고 대신 주택과 상가에서 요금을 비싸게 받아 이를 충당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는 용도별로 나누지 않고 전기를 쓴 만큼 요금을 내는 구조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싸게 공급되는 산업용과 교육용·농사용의 전기요금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원가가 100원이었다면 판매를 통해 회수된 금액은 산업용의 경우 91.4원, 교육용 90.1원, 농사용 38.3원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농사용을 제외하고 산업용과 교육용의 요금을 원가 수준으로까지 점차 올린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광주·전남지역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은 전체 전력사용량 가운데 산업용이 61.7%, 농사용이 5.6%를 차지, 전국 평균(55.8%, 2.2%)에 비해 비중이 월등히 높다. 따라서 요금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클 수 밖에 없다.

광주지역 한 중소기업 대표는 "경기도 어려운데 전기료까지 크게 올린다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통일부, 전남쌀 190t 北지원 승인

장흥지역 농민 등 민간단체가 추진해온 '전남쌀 190t 대북 지원'〈광주일보 13일자 1면〉이 결실을 맺게 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민간과 정부 차원을 통틀어 북한에 대한 첫 쌀 지원이다. 이를 계기로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의 대북 쌀 지원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통일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본),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민주노동당 전남도당은 14일 "통일부가 북한 수해 피해지역인 신의주에 203t(40kg들이 5075포대)을 전달하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일부가 '북한 지원용 쌀 반출 신청'을 승인하는 대신, 방북 인원과 규모를 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애초 신청서에는 대표단 35명이 1t 트럭 10대와 25t 트럭 등 19대를 이용해 육로로 전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통일부는 대표단을 14명으로 제한하고 육로 수송 차량을 25t트럭 9대로 줄이도록 했다는 것이다.

대북 지원용 쌀 203t은 전남 장흥에서 생산된 쌀이 190t(40kg들이 4750포대)으로 가장 많고 카톨릭농민회가 유기농으로 재배한 쌀 10t(40kg들이 250포대), 강원도 홍천쌀 3t(75포대) 등이다.

이들 단체는 이에 따라 1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7일 임진각에서의 환송식을 거쳐 경의선지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측 개성 봉동리까지 육로로 옮긴 뒤 열차로 수해 피해지역인 신의주까지 운송한다는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경축 자율형 사립고 지정
✓대한민국 최고의 선생님을 모십니다.
✓전국 최상위 튼튼 재단
✓전교생 수용 최첨단 명품 기숙사 신축
✓보다 폭넓은 장학금 제도
✓2009년 교과부 선정 영어 리더 학교
- 준비된 자율형 사립고-
보문고등학교
입학문의 062) 940-8800

학교설립 56주년 (1954 ~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한가위 과일전쟁

나주배 값 2배…그나마 품귀

'나주배'의 산지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가격이 예년에 비해 2배 가량 인상된 상태인데도 물량을 구하지 못하는 등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올봄 이상저온에 이어 최근 태풍과 잦은 비로 인해 낙과피해가 겹친데다 과실의 성장마저 지체된 탓이다.

14일 나주시농협공동사업법인에 따르면 현재 나주배의 산지유통센터 선별장 출하물량이 하루 1400컨테이너로, 지난해 3200컨테이너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지난해 2만원에 살 수 있었던 배 1박스(7.5kg)가 현재 4만원으로 치솟았다.

사과 출하량도 예년의 70%에 그치면서 지난해 사과 1박스(5kg)에 3만원이었으나, 현재 3만5000원을 주고도 못살 지경이다.

산지에서는 아예 통신판매나 중계거래의 경우 주문을 받지 않고 있다. 중·도매상들은 물량 확보에 혈안이 돼 있다.

영산포농협 박석훈 상무는 "전국에서 주문량이 쏟아지고 있으나 물량을 대지 못하고 있다" 며 "우체국 택배와 농협계통주문 등은 주문을 받지 않고 있"고 말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농협도 이날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에서 판매할 배 물량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오른 가격은 차치하고라도 시중에서 품질 좋은 배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나주지역이 수확기가 10여일 가량 이르다는 점 때문에 전국 각지 중·도매상들이 물량 확보를 위해 나주에 몰려오고 있으나 돈을 쥐고도 물건을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귀하신 흑산 홍어

60만원대 치솟아도 주문량 못대

추석 대목을 앞두고 흑산 홍어가 금값이 됐다. 이제 막 조업이 시작됐지만 잡히는 물량이 적은데다, 막걸리 열풍이 불면서 안주로 '찰떡 궁합'인 홍어 수요도 덩달아 급증하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다.

14일 신안수협 흑산지점에 따르면, 홍어를 잡기 위한 출어가 지난 7월 26일 시작됐지만 어획량이 어선 1척당 20~30마리에 그치는 등 어획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5척이 조업에 나서 위판한 홍어도 120마리에 그치는 등 어획량이 예년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수협은 설명했다.

이처럼 홍어가 잡히지 않는데다 지난 주말엔 홍어 축제까지 겹치면서 8kg 이상 상품 1마리(암컷) 가격이 64만원을 호가, 지난 5월 31일 마지막 위판 때 가격 32만원에 비해 배 가까이 올랐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전국에서 홍어 주문이 밀려들고 있지만, 어민과 수협은 홍어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신안수협 흑산지점 강임호 유통사업과장은 "지난 6월 1일부터 한 달 보름간 홍어 금어기가 끝나고 홍어잡이가 시작됐지만, 어획이 부진한 상태"라면서 "찬바람이 불고 날씨가 쌀쌀해지는 10월부터는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흑산 홍어는 7척의 어선으로 매년 3만 8000마리를 잡아 35억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신안의 대표적인 특산물이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